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 7 시민정원사

동문소식

- 8 동창회
- 9 동문동정
- 10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 환경계획학과 이희연 교수 정년 기념 인터뷰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5기 모집 안내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1.1 도시계획론 : 서울 광화문·광장시장 답사

환경계획학과 김광중 교수와 학생 12명은 도시계획론 수업의 일환으로 4월 14일 서울의 도심공간이 어떠한 변천사를 겪었는지 직접 관찰하기 위해 광화문부터 광장시장 일대를 답사하였다. 과거 도시공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출간한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 도심부 토지이용 및 경관변화」를 참고하여 198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였다.

서울의 중심상업지구인 종로에서 시대별 도시계획의 흔적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맛골의 골목은 고층건물 내부에서 보존되고 재현되어 있었고, 복원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청계천

주변에는 한국 근대 건축을 대표하는 삼일빌딩과 현대적인 기업의 사옥이 함께 늘어서 있었다. 종로3가의 오래된 식당들 맞은편에서는 한창 개발 중인 지구단위계획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종각역 주변에서는 공공의 개입 정도에 따른 도시 형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운상가와 그 주변을 답사하면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장시장에서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도시계획이 도시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1.2 지속가능교통론 : 송내역 환승센터 및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답사

환경계획학과 장수는 교수는 지속가능교통론 수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26일 송내역 환승센터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를 답사하였다. 수업에서 공부했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체계가 실제 도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 답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송내역 환승센터는 2016년 1월에 완공되어 지하철 1호선과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간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승객들은 지하철 플랫폼으로 나온 후 바로 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송내역 환승센터는 1층과 2층을 택시 승강장과 버스 승강장으로 구분함으로써 교통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문한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운전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주차장 정보 제공을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이용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나 불법노상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부천시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제휴를 맺고 진행 중인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서비스는 운전자가 목적지를 기입하면 주변 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 여부를 시각화해 표현해줌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주차공간을 찾아 배회하는 불편을 없애 줄 것으로 기대된다.



1.3 정치생태학 :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일대 답사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는 정치생태학 수업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1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일대를 답사하였다. 답사를 통해 강의실에서만 주고받았던 정치생태학적 가치들과 이론들을 직접 현장에서 토론하고 생동감 있게 지식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먼저 정치생태학 수업에서 배운 환경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적 결과에 따라 오랫동안 민간 활동이 제한되어 온 DMZ 일대를 답사하며 생태 환경과 정치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였다. 생태계의 보고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임진각 일대는 임진강 주변으로 무성한 녹음이 우거져 있었으며, 교수와 학생들은 이와 같은 비무장지대의 정치생태학적 가치에 관해 토

론하였다. 이후 제3땅굴을 체험하고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 UN 평화의 공원 등을 답사하며 남북통일의 희망을 가져보았다.

다음으로 IMO(Indigenous Micro-Organisms to Production) 자연농업 실습장을 방문하여 IMO 자연농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IMO 1~4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직접 만들어보며 체험했다. IMO 자연농업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으로 파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보편화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1.4 커뮤니티계획과 설계 : 돈의문박물관마을 답사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가 담당하는 ‘커뮤니티계획과 설계’는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에 관한 제반 이슈와 문제를 이해하며 실천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수업이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서울대학교 사회공헌형 수업, 금천구청의 민·관·학 스튜디오 수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에 실제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행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18년 5월 10일, 근현대 골목길과 건물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을 시도한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서 답사를 진행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돈의문 터 근처,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역 사박물관 사이에 위치한다. 서울시는 과거 동네의 정취를 유지하여 이곳을 거주민의 삶과 일상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마을형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창조계층을 입주시켰다. 아직 모든 건물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방문한 당일에

도 각 건물들에서 창작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는 실제 박물관인 서울역사 박물관 돈의 분관이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까지 있었던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지오(AGIO)’와 한정식 식당 ‘한정’을 그때 당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놓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특히 아지오 2층에 전시되어있는 ‘두 동네의 기록과 기억 : 교남동과 새문안 동네’는 본 수업의 강사인 최재원 큐레이터가 기획한 것으로 직접 전시 의도를 들을 수 있었다.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 수강생들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 답사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과거의 공간을 그대로 남기는 것만이 진정한 재생인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재생은 무엇인지에 관해 토론을 나누었다.



행사/학술/연구

2.1 환경대학원 행사

1) 고주 노용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유가족 장학기금 1억 원 기탁



지난 2017년 9월 11일, 196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를 개설하고, 1973년에는 환경대학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던 고주 노용희 명예교수께서 별세하셨다. 유가족들은 생전에 환경대학원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쓴 고주 노용희 명예교수의 뜻을 받들어 환경대학원에 장학기금을 기탁하였다. 이에 따라 ‘고주 노용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명패가 서울대학교 명예의 전당과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Wall에 등재될 예정이며, 2019년부터 [고주 노용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장학금]이 재학생들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2)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

지난 5월 1일 우리 대학원의 전상인 교수가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전상인 교수의 수상은 우리 대학원으로서의 첫 교육상 수상으로 그 의미가 뜻깊다. 교육상은 5년 이상 재직한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에게 시상되는 상이다.

전상인 교수는 5월 28일에 우리 대학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상 수상 기념 특별강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3) 환경계획·설계 특강

환경계획·설계는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의 응용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목표로 한다. 그 수업의 일환으로 2018년 3월 14일 유종필 관악구청장을 초청하여 '파괴할 수 없는 지식의 탑, 세계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은 세계 각지의 도서관에 관한 내용과 오바마, 스티븐잡스, 빌게이츠의 사례를 들어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관악구의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도서관' 성공사례와 '지식도시락 배달' 서비스, 관악구의 우수한 지역 도서관 시스템과 환경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식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지역 내 모든 도서관을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책을 신청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책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2010년 관악구 내 도서관은 5개뿐이었지만, 유종필 구청장은 기존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 지역 내 도서관을 43개까지 늘렸다. 유 구청장은 "누구나 햇빛의

금년도 환경계획 설계 수업은 서울대 '대학 연구성과 사회환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대학 연구성과 사회환원 프로그램'은 교양, 문화, 건강 등 다양한 전공지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위한 대학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프로그램이다. 환경계획 설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협력을 도모하고, 향후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8년 3월 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혜택을 받는 것처럼 지식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게 하는 것이 지식복지"라며 "그런 면에서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은 가장 좋은 지식복지이자 생산적 복지"라고 말했다. 특강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관악구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친환경 보도 정비, 도시 농업 정책 등 관악구와 관련된 다양한 도시·환경 현안 및 정책에 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환경계획 설계의 최종보고회가 6월 20일 환경대학원 82동 103호에서 개최되었다. 최종보고회에서 심소정 외 8명의 학생이 진행한 '난곡동 지역 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방안: 쓰레기 집중수거지점 선정 및 지역 거버넌스 연계 제안' 프로젝트가 1등상을 받았으며, 뒤이어 남궁혜진 외 9명 학생의 'Tactical Urbanism을 적용한 전봇대 불법옥외광고부착물 개선: 대학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조윤신 외 9명 학생의 '사람, 지역, 환경이 함께 하는 도림천 네트워킹'이 각각 2등상과 3등상을 받게 되었다. 최종보고회 종료 후 피자파티를 하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 하였으며, 2018년 환경계획 설계의 결과물은 온라인출판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4) 2018 정원 가꾸기 식목행사

지난 4월 4일 환경대학원 건물 옥상에서 '2018 정원 가꾸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총 70여 명의 환경대학원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해 텃밭을 일구고 식재를 심으며 식목행사의 의미를 나누었다.

함께 진행된 제7회 사진전에서는 환경계획학과 강인구(석사 2기)의 '익숙한 노을 풍경'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5) 2018 스승의 날 및 어울림 체육대회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16일 환경대학원 2층 P&C홀에서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환경대학원 각 전공의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카네이션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스승의 날 행사 이후 곧바로 어울림 체육대회가 관악사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어울림체육대회는 조경학과와 교통학 전공이

한 팀,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관리 전공이 한 팀을 이루어 서로 협동하며 대결하였다. 체육대회 종목은 기존의 물을 벗어난 게임(코끼리코 돌고 제기차기, 전략 줄다리기, 사방피구)과 피구(여자), 농구(남자) 시합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체육대회의 추첨 상품으로는 공기 청정기, 블루투스 스피커, 독서대, 타조 낮잠베개 등이 주어져 체육대회 분위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2.2 BK21 Plus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1) 제31차 콜로키움 Solar City Seoul: Challenges for Society and Academia

2018년 3월 21일, 에너지 환경 정책 분야 연구자인 서울대 윤순진 교수를 중심으로 델라웨어 대학교의 존 번 교수와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존 뱅크 교수가 모였다. 존 번 교수와 존 뱅크 교수는 FREE(Foundation for Renewable Enrgy & Environment) 재단에 참여하고 있다. 세 연사는 각 도시의 태양광 에너지 체제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후에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델라웨어 대학교와 존스홉킨스 대학교 석박사 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윤순진 교수는 ‘How to Frame Community Solar as a Civil Society Strategy: The Solar City Seoul Initiative’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에 시작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도입 배경과 해당 프로그램이 목표 시점 이전에 원전 하나의 생산 전력을 절감하게 된 성공 배경,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의 야심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과 장애 요인들을 설명했다. 서울은 소규모 주거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과 시민협동조합 양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협동조합, 시민펀드, 크라우드펀드 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에너지 시민성을 획득한다. 윤 교수는 현재 서울의 태양광 정책의 실현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의 관성과 한전의 전력 시장 독점, 그리고 낮은 전기요금 등을 꼽았다. 발표의 마지막은 미국, 한국의 도시들이 정치사회적 맥락은 다르지만 에너지 전환

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실험들을 서로 배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존 뱅크 교수는 Community(Shared) Solar 접근 모델과 Minicipal Utilities 모델을 소개했다. Community Solar 접근 모델은 최근 미국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모델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공간이 적은 서울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 중 어느 정도를 다시 태양광 발전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추가 세운 설비(Municipal Utilities)는 1만 명 정도의 적은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이 설비는 수익을 내기보다 지역 내 소비할 전력을 생산하는 용도로 설치되었다. 일례로 텍사스 주의 오스틴의 경우 Palmer Array(185KW)와 La Loma(26MW)가 있고 시민들이 신청하면 이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100% 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기 요금은 15년 간 고정되어 안정된 가격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존 번 교수는 도시 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지붕의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며 위성사진을 통해 경사나 가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여 전체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FREE 프로젝트는 서울 면적의 1/5정도에 해당하는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4.7GWp의 태양광 설치 면적을 찾아내었고, 공공 빌딩들을 대상으로 모델링하여 얼마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하였다.



2) 제32차 콜로키움 분산에너지자원 확대와 전력시장구조 개선 과제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에 연구교수로 몸담았던 유정민 박사를 초청하여 2018년 5월 18일 “분산에너지자원 확대와 전력시장구조 개선 과제”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유정민 박사는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 재생가능에너지정책과 전력시장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부의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급분과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분산 에너지 자원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분산에너지자원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이 전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17년 기준 22,980개가 등록되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

었다. 유 박사는 이를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재생에너지 국가들의 전력시장을 소개하였다. 국내 전력시장은 RPS 중심으로 소비자의 전력 판매 선택권이 없으며 현재 일부에서만 이웃형 프로슈머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 박사는 국내의 에너지 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세운 지역에너지정책을 국가에너지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에너지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및 시장제도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지자체가 에너지 정책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제33차 콜로키움

The Plight of Climate Refugees: Rising Seas, Melting Ice, and Inadequate Legal Protections

Florida A&M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Randall S. Abate 교수를 초청하여 2018년 5월 28일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The Plight of Climate Refugees: Rising Seas, Melting Ice, and Inadequate Legal Protections”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Abate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세계 기후난민의 현황, 인권, 기후 변화 책임 문제와 기후 난민 보호법의 한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미국 내의 난민 사례(Kevalina, Isle de Jean Charles)

를 소개하며, 기후 난민은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이긴 하지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 난민에 대한 정의와 차별화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강연의 핵심은 국제환경법의 경우 두 세 조항은 기후난민을 보호하는 데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인권과 기후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4) 제34차 콜로키움

Social conditions to better realize the environmental gains of alternative energy

BK21 환경대학원 기후변화사업팀에서는 2018년 6월 11일 미국 Miami University의 Ryan Gunderson 교수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날 발표주제는 “Social conditions to better realize the environmental gains of alternative energy”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소개되었다. 먼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낙관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기술은 사회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재생에너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energy boomerang effect를 설명하면서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아니라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측면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을 할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저성장은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돕는다. 100%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 역시 줄이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적으로 활발한 “community energy”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프로젝트와 에너지 시티즌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Gunderson 교수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학생들의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저성장과 커뮤니티에너지’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체 에너지 사용 절감,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반한 참여적 거버넌스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탈 석탄사회로 가기 위해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저성장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Gunderson 교수와 학생들의 토의가 이어졌고, 특히 기술 발달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2.3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행사/학술/연구

1)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특강 서울시의 도시재생 추진 방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는 2018년 4월 10일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본 강연은 이영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진희선 본부장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현안과 과제, 도시재생과 계획가의 역할,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과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진희선 본부장은 서울이 지난 50년간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서울은 세계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지만, 소득 격차와 일자리 불균형 등 양극화와 저성장·저출산, 노후주택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야기되었음을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5년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구축하는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본부 출범 4년차를 맞이하여 ‘2018 서울형 도시재생 4.0’을 시행하고 있다. ‘2018 서울형 도시재생 4.0’을 통해 그간의 단편적·부분적 재생에서 총체적·통합적 재생으로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성장과 개발을 강조하던 “경제 가치 중심” 재생에서 보존, 역사, 공동체 등 “사람 가치 중심”의 재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본 강연에서는 현 서울시의 131개 도시재생사업 중 서울로 7017, 세운상가의 다시·세운 프로젝트, 창신·송인 지역재생회사(CRC) 구성 사례 등 도시재생사업들이 가져온 지역 활성화 및 관광유발 효과,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진희선 본부장은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로서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등 지역산업의 육성·재창조, 민관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지역재생, 그리고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공공임대수가 도입 등을 수반한 약자 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을 언급하였다.

이후 김경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학생과 시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희선 본부장은 물리적·경제적·환경적 재생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를 내포하는 ‘인문적’ 차원의 재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다. 도시재생사업 진행 시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 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 사업 기간 단축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최근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하였다.



2.4 교통학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제27회 교통연구세미나 : Data Science 교통학 : 위기와 기회

2018년 2월 23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6호에서 “Data Science 교통학 :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사전 행사로는 교통학전공 재학생들이 작성한 교통안전·교통약자·교통운영·교통계획·철도·녹색교통·교통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공식행사인 교통연구세미나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박사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

안전공단, 삼성카드, 부천시청, 환경계획연구소 등 여러 기관의 토론자를 초청하여 교통학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Data Science가 가지는 중요성과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한계점, 개선방향에 관한 생각들이 논의되었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후학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상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토론의 장이었다.



2) 제46회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차량센싱, 공공/민간 등 다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행환경 분석 플랫폼 개발

2018년 3월 23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학 전공에서 국내 교통 분야 전문가가 초청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201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본 행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사업팀이 주최하였으며, 이번 회차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인 정인택 박사의 차량센싱, 공공/민간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행환경 분석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하였다.

정인택 박사에 따르면, 현재 수집되는 기상데이터와 도로교통데이터는 고정식, 구간식 검지를 한다는 한계가 있고 좀 더 정밀한 자료를 위해서는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자동차에 센서를 설치하여 이동식 수집정보를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기술개발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도로교통데이터 가공의 핵심 기술은 이동식 센서의 구간정보를 어떻게 반영하여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현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서는 그리드 형태로 지역을 구분하여 데이터 관리의 단위로 삼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정교화하고 있는 단계이다. 정 박사는 이런 정보처리 방식은 후에 행정동/자치구별 통계가 필요할 때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밝혔다. 이외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더 많은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정 박사는 말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정인택 박사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과 장수는 교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해당 기술을 어떻게 더 사업화할 수 있을지, 연구원으로서의 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통학 전공 학생들의 사업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연구소 일상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제47회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Hyperloop 도입에 따른 미래 교통환경

2018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학 전공과 BK21+ 사업 팀, 그리고 한국철도학회 철도타당성연구회에서 주최한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엄진기 박사가 발표를 하였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장수은 교수가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또한 발표 내용에 대하여 박민철 교수(한국교통대학교), 박재현 박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윤양 부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토론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하이퍼루프와 미래 교통환경’을 주제로,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이슈 등이 소개되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하이퍼루프를 ‘하이퍼튜브’라고 명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자기부상 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튜브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하이퍼튜브 기술이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튜브 안의 기압 문제, 비상사태 대비 문제,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였다.

하이퍼튜브에 대한 주요 관점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고속 교통수단으로서의 서비스 거리와 대상 지역, 둘째, 국내 적용 시 KTX 및 항공기와의 관계 설정, 셋째, 비용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인가의 문제, 넷째,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 다섯째, 기타 새로운 교통수단과의 경쟁 등이 주요한 이슈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외부 환경 조건으로는 토지 이용 및 인구변화, 시간가치, 그리고 수요와 접근성 개선에 관한 관점을, 내부 환경 조건으로는 보안설비, 밀폐된 공간에서 운행되는 문제점, 좌석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신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가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미래 교통 환경의 변화를 논의하였고, 하이퍼루프에 대한 후배 연구자들의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5 환경관리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제10회 서울대 환경대학원-북경대 환경·에너지대학원 환경학술회의

2018년 4월 30일(월) ~ 5월 1일(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북경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The 10th Environmental Conference of SNU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nd PKU School of Environment & Energy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북경대학교 환경·에너지대학원의 구성원들이 환경문제에 관한 지식을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서울대학교와 북경대학교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본 행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주관하였으며, 4월 30일에 있었던 학술회의는 “Changes of the Environment and Society: Measurements and Implications”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학술회의에는 양 대학원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대학교와 몽골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참여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오농환 교수(환경계획학과)의 개회사로 시작된 학술회의에서는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 동경대학교, 몽골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발표로 구성된 특별 세션과 학생세션이 진행되었다. 학생세션에서는 환



경과학, 환경공학, 환경정책학, 환경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토론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5월 1일에는 학술회의 참석자들이 DMZ를 방문하여 DMZ의 생태적 가치와 한국의 분단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1회 학술회의는 2019년에 북경대학교 환경·에너지대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6 도시 환경 교통 융복합 전공 행사/학술/연구

1) 관악모듬강좌

2018년 1학기 김태형 교수의 지도 아래 학부생 교양과목으로 관악모듬강좌(주제: 서울)가 진행되었다. 본 수업의 주제는 ‘서울’로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서울대학교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연구에 필요한 학문 간 융복합적 분석을 위해 매주 다른 주제의 강연을 구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서울의 도시재생

2주차 수업으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양병현 과장을 초청하여 “사대문안 역사도심, 관리를 넘어 재생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를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고 활성화시켜야 할지 실무자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양병현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역사도심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는 정동길 복원사업, 산업생태계 재생사업으로는 세운상가사업에 관해 설명하였다.

서울의 조경

13주차 마지막 수업의 강연자로 (주)동심원 조경기술사사무소의 안계동 대표이사가 초청되었다. 조경이라는 개념이 국내에서 생소했던 시기에 실무를 시작했던 안계동 대표는 조경의 1세대 주자로서 실무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주었다. 현대 조경양식의 흐름이 어떠하며, 도시 안에서 조경이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쉬운 언어와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설명해주었다. 안 대표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서울숲과 경의선 숲길 사례를 소개하여 조경이 서울 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생성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2.7 환경조경학과 행사/학술/연구

1) 2018학년도 1학기 과제전

6월 19일 화요일 10시부터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는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이번 학기동안 수업에서 진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과제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과제전에는 생물다양성과 환경계획/환경모니터링과 평가(지도교수 송영근), 광역조경계획(지도교수 손용훈), 재식설계(지도교수 성종상, 강사 안계동), 도시재생스튜디오(지도교수 김세훈), 커뮤니티계획과 설계(지도교수 조경진, 강사 최재원), 경관체계분석 세미나(지도교수 Wybe Kuitert), 도시설계스튜디오1(협동과정도시설계과목, 지도교수 이석정), 환경설계스튜디오(강사 강현석) 등 총 9개 수업의 47개 결과물이 전시되었다.

이번 학기 과제전에는 유재득(석사 93), 안승홍(석사 94), 이현강(석사 95), 진린(석사 95), 홍경구(석사 97) 동문 등 현장 실무에 있는 동문들이 참석하여 작품 크리틱 및 우수작 선정을 하였다. 대상에는 환경조경학과 강상현, 협동과정도시설계 박수원, 소희진의 “Green Living Lab City”(협동과정도시설계개설과목 도시설계스튜디오1, 환경설계스튜디오), 최우수상에는 환경조경학과 박영수, 협동과정조경학 조성아의 “종묘가는 길”(재식설계) 우수상에는 건설환경공학부 김대환의 “ROAD MARKET STREET”(도시재생스튜디오)과 협동과정도시설계 최영훈, 마영, 환경계획학과 은정민의 “Seedbed”(협동과정도시설계개설과목 도시설계스튜디오1, 환경설계스튜디오), 환경조경학과 이예슬, 최근재의 “CODING THE SEOUL”(광역조경계획)이 선정되었다.



2) 도시재생스튜디오 워크숍 주민초청 강의 - 에너지 집수리 모임에 대한 소개 및 설명

3월 20~22일 동안 난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설계 대상지이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난곡동을 직접 방문해 현장 가까이에서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난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서 듣기 위해 난곡동에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주민들을 초청하여 강연 및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에너지집수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종열 대표는 주민 모임을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주민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전해주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있는 김숙희 코디네이터

는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 등에 관해 강의하였다. 해당 워크숍은 설계 스튜디오 수업의 주제 설정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다.

1. 이종열 대표 (난곡동 에너지 집수리 모임 대표)
“난곡동 주민모임에 대한 고찰”
2. 김숙희 코디네이터 (난곡난향 도시재생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주민 교류를 위한 방안과 노력”



3) 신림동 고시촌 공유창고 플랫폼

환경조경학 전공 박경선, 강상현, 임범택, 이지우(이상 석사과정), 서예례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서울대학교 사회공헌단과 함께 지난 1년간 서울 신림동 고시촌을 대상으로 공유창고 플랫폼을 제작하였다. 공유창고는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중고물품거래 시스템을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활성화 시키고 녹두집 공간 및 고시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만들어졌다. 지난 3월 녹두집에서 오픈행사를 가졌으며 현재 고시촌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과 1인가구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되었다. 공유창고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간과 운영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박 2일간 해커톤을 진행하여 고시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추후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2.8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학술활동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민성**(석사과정), **김진석**(석사과정), **이보람**(석사과정)은 6월 27~30일 영국 Reading에서 개최된 EUROPEAN REAL ESTATE SOCIETY(ERES) 25th Annu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Impact of Touristification on Housing Market in Seoul”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보람**(석사과정)은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 **유슬기**(박사과정)와 함께 6월 27~30일 영국 Reading에서 개최된 EUROPEAN REAL ESTATE SOCIETY(ERES) 25th Annu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The Role of Gay and the Emergence of Gay-led Gentrification in Commercialization in the Urban Area”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김지혜**(박사과정)는 2018년 5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여성연구원 주최 2018 RIAW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Gender 국제회의에서 “Sustainability Transition Policies of Seoul Metropolitan City”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와 ‘공유도시 서울’ 정책을 지속가능성 전환이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도시에서 지속가능성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략들을 제안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손승운**(석사과정)은 2018년 6월 27~29일 서울에서 열린 제6회 국제 어린이 환경보건 컨퍼런스(INCHES)에서 “VOCs Exposure and Risk assesmenst on diaper medium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VOCs 발생으로 논란이 되었던 생리대와 원료가 유사한 국내 유통되는 기저귀에 관한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문헌조사와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산정한 위해도를 식약처의 결과와 비교하고, 다수의 VOCs 노출에 의한 종합적인 위해성을 판단하고 제시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고하정**(박사수료)과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Ecological Indicators 제91권에 “Perceptions of cultural ecosystem services in urban green spaces: A case study in Gwacheon, Republic of Korea”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과천시를 대상으로 도시녹지 특성에 따라 문화서비스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지난 2016년 국립생태원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Yingnan Han**(박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Environment Monitoring and Aseesment 제190권 2호에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microclimates at an urban forest edge and their management implications”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한국의 관악에 위치한 도시숲의 가장자리에서 변화하는 미세조직의 특징을 분석한 것으로, 대기온도, 상대습도, 토양온도, 토양습도, 사진활성 방사선(PAR)에 대한 예지효과를 조사하여 도시 숲 가장자리에서 토양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세물질 변수의 일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산림 구역을 설계할 때 산림 관리자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도시지역의 단편화된 산림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조시은**(박사수료)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The 4th NZAAR International Event Series on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Cities, Sustainability, and Advanced Engineering에서 “Social cohesion under diverse housing environments in Songjiang New Town, China”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를 하였다. 해당 연구는 급격한 도시화 및 사회경제체제 변환으로 인해 발현된 중국 뉴타운의 다양성과 사회적 혼합 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송지양 뉴타운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사회적 혼합의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며, 기존 문헌들에서와 같이 성별, 혼인여부 등의 개인요인들의 유의미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호구가 미치는 영향을 재고하였다. 또한, 이주민이 공존하는 상품주택단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 이주정책에 대한 보완과 향후 도시설계 차원에서 취약한 단지의 위치 및 접근성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최희준**(박사 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4월 8~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The EGU(European Geoscience Union) General Assembly 2018에 참석하여 "Estimating urban forest growth by comparing canopy height models generated from bi-temporal airborne LiDAR dataset"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해당 내용은 2개년도 항공 LiDAR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림의 성장량, 성장지역 및 교란지역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으로 2012년도와 2015년도 항공 LiDAR 데이터로부터 수관높이모델을 생성한 뒤, 두 모델의 수직적인 차이를 계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연평균 23 cm의 수직방향 생장이 추정되었으며, 대상지의 35% 이상의 면적이 물리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2개년도 항공 LiDAR 데이터를 이용하여 넓은 지역에서의 수직 및 수평적 변화량을 효율적이면서 정확하게 추정한 연구로 도시림 모니터링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 **환경조경학 전공 Zhen Han**(석사 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4월 8~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The EGU(European Geoscience Union) General Assembly 2018에 참석하여 "Quantifying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the volume of leaves by using bi-temporal terrestrial LiDAR data"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해당 내용은 지상 LiDAR를 사용하여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우거진 부분의 수직 분포를 복셀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측정한 것으로, 3D 캐노피 구조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 ◎ **환경조경학 전공 김나영**(석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4월 21~23일 나고야대학에서 개최된 East Asian Federation of Ecological Societies에 참석하여 "Assessment of habitat quality in the isolated green areas of Seoul using InVEST model"라는 제목으로 학술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해당 내용은 도시 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단절된 생태 네트워크의 진단과 효과적인 복원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원 인프라, 서울시 생물종 출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우선 회복 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식지의 질과 내외부적 특성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복원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소규모로 고립된 지역의 생태네트워크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의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 ◎ **환경조경학 전공 김종희**(석사과정)와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4월 21~23일 나고야대학에서 개최된 East Asian Federation of Ecological Societies에 참석하여 "Estimation of micro-climate change in highly-dense urbanized area by restoration"라는 제목으로 학술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해당 내용은 네트워크 연결성 및 서식지 질이 낮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일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복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도시 생물 서식 현황, 환경요소에 관한 DB와 함께 서식지 질과 서식환경을 고려한 복합적 복원 방향을 제시하였고 복원 전후 모델을 제작한 뒤 시뮬레이션 평가하여 복원에 따른 환경조정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 연결성과 서식지 질이 낮은 지역의 복원에 따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국내학술활동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천승환, 김수, 이지원**(이상 석사과정), **환경관리 전공 김주리**(석사과정)와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8년 5월 8일 환경정책 제26권 제2호에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친환경 행동 활성화 잠재성 검토: 행동경제학, 인구사회학, 환경심리학 변수의 비교”라는 논문을 게재 확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심리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환경정책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이행을 위한 행동경제학적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 ◎ **교통학 전공 김정은**(박사과정)은 교통연구 제25권 1호에 “국내 화물통행실태조사 체계 개선 연구”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논문은 국내외에서 수행된 화물통행실태조사 사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국내 화물통행실태조사가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 과정 각 단계별로 발견된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화물통행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 **교통학 전공 이승봉**(박사수료)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ITS학회지 제17권 2호에 “긴급차량 융합형 우선신호 제어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긴급 상황 시 긴급차량의 무정차 통과를 위한 우선신호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제시하였고, 시뮬레이션(VISSIM) 분석을 통해 긴급차량의 지체 감소효과를 증명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강소연**(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동남아연구 제28권 제1호에 “개도국 빗물 활용의 효과와 의의: 인도네시아 북부 자카르타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북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빗물집수장치 설치 학교들을 연구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빗물의 기능과 영향이 훨씬 더 확장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선진국형 물 연성 경로에 생활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을 빗물로 보강하는 공급 전략을 추가함으로써 ‘개발도상국형 물 연성 경로’가 이론적 실천적으로 보다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김지혜**(박사과정)는 공간과 사회 제28권 1호(통권 제63호)에 “한국의 양식 산업 속 적조와 인간의 관계: 작은 것들의 카리스마, 적조”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적조에 대한 관망이 양식 산업의 발달 이후로 재편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비인간인 적조의 행위성을 추적한다. 이를 통하여 적조라는 ‘검은 상자(black box)’를 해부하고, 적조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가변적임을 보여주었다.
- ◎ **환경관리 전공 박종문**(박사과정)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0권 제2호에 “국내 지역 유형별 가구의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가구의 전력소비량이 수도권, 시, 군 등 도시 규모와 공간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도권 모형, 시 지역 모형, 군 지역 모형별로 가구의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 분석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박종문**(박사과정)과 **김지혜**(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도시행정학보 제31권 제2호에 “도시재생에 대한 국제 연구 동향과 국내 정책결정자 담화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로 수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하여 의미연결망 분석과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국제 연구동향을 통해 도시재생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국내 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2.9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내용

학봉장학회 동아시아 연구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승화(박사과정)는 2018년 4월 30일 학봉장학회에서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land finance, affordable housing land and commercial housing land supply" 주제로 동아시아 연구 우수논문상을 수상 하였다. 해당 연구는 중국의 상품주택과 경제적 용주택은 토지재정을 매개로 하여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토지자원을 둘러싸고 직접적으로 경합 또는 대체하는 관계임을 밝혔다.

2018 춘계산학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Joshin Asuka(석사과정)는 2018년 4월 28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춘계산학학술대회에서 "일본 주택 구입에서 나타나는 부모 금융원조에 따른 사회 불평등"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연구는 주택 구입 시 부모세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모 자금 원조의 차이가 사회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2018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환경관리 전공 고민정(석사 졸업)과 오능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8년 2월 21~23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결빙-해동이 하천 내 용존 규소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하였으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결빙 및 해동 작용이 수용액 내 규소 농도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주로 색도계로 측정되어 보고되었던, 결빙횟수 및 기간이 긴 한대·극지하천의 규소 농도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서 흡수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 또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환경관리 전공 박초아(석사과정)는 2018년 2월 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4대강 수계 수돗물 중 과불화 화합물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한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대강에서 검출된 잔류성 유기화합물(POPs)로 분류된 과불화 화합물 PFOS와 PFOA의 수돗물 섭취와 접촉의 경로를 통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4대강이 속한 지역 특성과 두 물질의 위해도의 연관성을 통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8년 한국농촌계획학회상(논문상) 수상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황비람(박사수료)은 2018년 4월 27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열린 2018년 한국농촌계획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농촌계획학회상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상 부문에는 2017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연구 2편이 선정되었다. 그는 "농촌 공동체 협업활동의 사회연결망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농촌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활동의 참여 주체와 협업 내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조 및 중심성 분석을 통해 공동체 핵심 단체의 선별 및 유형 특성을 해석하였다.

ESRI Korea의 2018 Map Contest에서

Best Analyst Award & Yong Scholar Awards 수상

환경조경학과 김소연(석사과정)은 2018년 4월 12일 ESRI Korea에서 열린 2018년 Map contest에서 "Prioritizing Installation and Cancellation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LUUP)"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1등(Best Analyst Award & Yong Scholar Awards)을 수상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 및 해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2018년 태화강정원박람회 메시지가든 부문 동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이상아(석사수료)는 2018년 4월 13-21일 울산태화강대공원에서 개최된 2018년 태화강정원박람회의 메시지가든 부문에서 “Observatory”라는 제목의 정원을 설계 및 시공하였고 동상을 수상하였다. “Observatory”는 태화강을 또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정원을 뜻한다. 이곳에선 내가 나를, 서로가 서로를 보는 대상자와 관찰자가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8년 어린이를 위한 작은숲 설계조성 공모전 최종 당선

환경조경학과 이상아, 이진희(이상 석사수료)는 2018년 4월 17일에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주최한 어린이를 위한 작은숲 설계조성 공모전에서 “둥지를 나온 아기 삼남매”라는 제목의 정원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선정 후 5월 한 달간 시공이 진행되었으며, 6월에 오픈하여 현재 어린이집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둥지를 나온 아기 삼남매”는 응봉산의 절벽에서 살고 있는 가상의 새 가족을 위한 이야기를 테마로 한 공간으로,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2.10 석박사과정 학생 인턴십 활동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2학기부터 도시·환경 인턴십(Internship on City and Environment)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대학원 학생들은 국제기구, 도시·건축·조경설계사무소, 환경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턴십 활동에 참여 중이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8년 1학기에 도시·환경 인턴십 교과목을 수강한 한 학생의 인턴십 사례를 소개한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인턴십 소감

환경조경학과 서여령(석사과정)

안녕하세요.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서여령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난곡·난향동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며 그런 소통의 결과가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난곡·난향동은 2017년에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근린재생형 일반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80% 이상 분포하고 있고 좁은 골목과 비탈길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 도심 불량주택 철거민들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난곡동은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뻔했지만 무산되었고, 이후 2017년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난곡·난향동에서 진행될 도시재생사업에서 서울시와 관악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단체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나가며 중간조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민모임 중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집수리 모임의 집수리 활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물품 구입 준비를 도와드리고 실제 집수리 활

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공동체와 관련한 공모 사업을 조사하고 제안서 구상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협의체 창립에 대한 설명회 및 도시재생학교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난곡·난향동의 주민 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주민, 그리고 재생사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센터의 코디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턴 경험을 하기 전 궁금했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전보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 방향과, 머지않아 진행하게 될 석사 논문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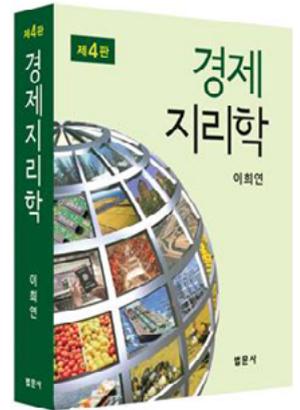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NO	과제명	연구 책임자	발주(지원)기관
1	녹색통치성 이론을 이용한 한국 생태관광 거버넌스 분석 - 제주 돌고래 관광을 중심으로	최명애	교육부
2	임진각 관광지 통합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 공간계획 부문	조경진	경기관광공사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중산동~운북동간 영종순환도로 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수요 및 편익추정	장수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경기 본청) 지방도 321호선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 수요 및 편익추정	장수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교통 회복력 강화를 통한 서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연구	장수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6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분석보고서 디자인 계약	이유미	한국감정원
7	능동형 우선차량 경로관리 및 신호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이영인	경찰청
8	서울의 폐쇄적 주거단지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이영성	교육부
9	도시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연구	이석준	교육부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내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노출 예측기법 개발: 한국형 다매체모형의 개발	이동수	환경부
11	기후변화 위험시대 회복탄성을 고려한 적응 전략 연구팀	윤순진	교육부
12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생태형 공원녹지 조성모델 연구용역	송영근	광주시
13	생태계서비스 수요지도 작성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손용훈	국립생태원
14	[3차년도] 파라토피아: 남북한의 평행적 도시 건축	서예례	서울대학교
15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기반 지식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재구조화에 대한 실증분석	박소현	교육부
16	건조환경이 주말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적 규명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
17	연안생태적 위험과 연안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연안 관리	김지혜	교육부
18	모듈러주택 인공지능 자동설계 솔루션 '빌드잇'의 사용성 평가	김세훈	민간기관
19	파주출판도시 도시진단 용역	김세훈	파주시
20	모듈러주택 인공지능 자동설계 솔루션 '빌드잇'의 사용성 평가	김세훈	민간기관
21	초고령·저출산사회 도시쇠퇴를 대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김세훈	미래창조과학부
22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3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4	백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요 및 편익부문 검토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5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김경민	서울시
26	일제강점기시대 민족자본에 의한 도시개발 과정 연구: 정세권의 건양사를 중심으로	김경민	교육부
27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하천 및 공원녹지 계획을 중심으로 한 도시설계 제안	이석정	고양시

교수 동정

환경계획학과 이희연 교수

- 이희연 교수가 1988년 8월에 경제지리학 초판을 출간한 지 30년의 시간이 흘렀고, 2018년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지리학을 전면 개정하여 제4판을 출간하였다. 특히 제4판에서는 경제지리학이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경제 현상들을 표, 그림, 다이어그램 등으로 나타내어 가시성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노력하였다. 제4판 전체 14개 장(950페이지)에 걸쳐 282개의 표와 503개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환경계획학과 최막중 교수

- 최막중 교수는 3월 9일 서울시에서 주최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미래 토론회'에서 "도시재생, 한때의 유행을 넘어"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최막중 교수는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심포지엄'에서 "국토계획, 인기 영합적이지 않은 난제(難題)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

- 전상인 교수는 아래와 같은 학회발표와 특강을 실시하였다.
 - 2018.1.26.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더 나은 한국사회의 길을 찾아 -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학술발표 "마음의 습관과 한국의 민주주의", 고려대 국제관
 - 2018.6.2 한국이론사회학회 여름 정기학술대회 <국가 다시 생각해 보기> 학술발표 "광화문극장의 도덕정치", 연세대 위당관
 - 2018.3.16.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콜로키움 "교통인문사회학의 탐색적 연구"
 - 2018.5.23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적인가?"
- 전상인 교수는 지난 5월 1일 '2018년 1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5월 28일 교육상 수상 기념 특강(글로벌홀)을 실시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홍종호 교수

- 홍종호 교수는 2018년 3월 한국재정학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이자 차기(2019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홍종호 교수는 2018년 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어 활동 중이다.

환경계획학과 김경민 교수

- 김경민 교수(환경대학원 부원장)는 2018년 2월 서울시에서 주관한 '일제강점기 디벨로퍼 독립운동가 기능 정세권 선생 기념사업 토론회'에서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김경민 교수가 다년간 연구를 진행하여 관련 저서를 집필한 바 있는 정세권 선생은 최근 그 생애와 업적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함께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

업의 일환으로 정세권 선생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 2018년 3월에는 부동산 트렌드의 미래를 진단한 저서 2020 부동산 메가트렌드 (HMS부동산랩, 와이즈맵)를 출간하였다. 저서에서는 학계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별 부동산시장의 동향, 해외 부동산시장의 움직임, 인구의 축소와 생활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파괴 등 분석적인 미래 진단을 리포트 하였다.

관련기사 링크

<http://news1.kr/articles/?3247266>

<http://news1.kr/photos/view/?2988265>



환경계획학과 김태형 교수

- 김태형 교수는 상반기에 총 7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였다(SSCI 단독 3편, SSCI 제2·교신 2편, Scopus 제2·교신 1편, 연구재단 제1·교신 1편). 먼저 SSCI급 저널에 실은 두 편의 단독논문에서는 도시구조가 시민의 주말 통행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 Gim, Tae-Hyoung Tommy. 2018. SEM application to the household travel survey on weekends versus weekdays: the case of Seoul, South Korea. *European Transport Research Review* 10: 11.
 - Gim, Tae-Hyoung Tommy. 2018.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and weekend travel: focusing on the internal capture of trips. *Sustainability* 10(1): 425.
- SSCI급 저널의 세 번째 단독연구로서 김태형 교수는 지역별 관광자원의 차이가 관광만족도, 이미지, 충성도(재방문 및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Gim, Tae-Hyoung Tommy. Tourist satisfaction, image, and loyalty from an interregional perspective: an analysis of neighboring areas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Sustainability* 10(4): 1283.
- SSCI급 저널의 다른 두 편은 2인 저술로서 교신저자의 역할을 맡았는데, 각각 개발도상국 대도시 주차난과 서울 재래시장의 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한 것이다.
 - Ajeng, Carolina and Tae-Hyoung Tommy Gim (corresponding). 2018. Analyzing on-street parking duration and demand in a metropolitan city of a developing country: a case of Yogyakarta City, Indonesia. *Sustainability* 10(2): 591.
 - Yi, Yun-Myong and Tae-Hyoung Tommy Gim (corresponding). What makes an old market sustainable? An empirical analysis on economic and leisure performances of traditional retail markets in Seoul. *Sustainability* 10(6): 1779.
- 교신저자이며 제2저자로서 Scopus급 저널에 출판 예정인 논문에서는 파리협약에 근거한 NDC의 국가별 차이를 탐색하였다.
 - Dash, Ryan and Tae-Hyoung Tommy Gim (corresponding). Drivers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 exploratory look at several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Review for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인쇄 중)
- 마지막으로 환경계획융복합연구실 학생들과 논문 쓰기 연습의 차원에서 시작한 논문이 연구재단 등재지에 실릴 예정인데, 해당 논문은 행동경제학적 장치의 효과성을 검토한 것이다.
 - 김태형(교신저자), 천승환, 김수, 김주리, 이지원.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친환경 행동 활성화 잠재성 검토: 행동경제학, 인구사회학, 환경심리학 변수의 비교. 환경정책(인쇄 중).
- 김태형 교수는 상반기에 두 차례의 컨퍼런스 발표를 하였다.
 - 김태형. A second look at land use influences on weekend travel as opposed to weekday travel. 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특별세션). 2018/04/28. 서울: 중앙대학교.
 - Gim, Tae-Hyoung Tommy.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the built environment on weekend travel behavior: some initial findings. 12th IACP Conference. June 30-July 1, 2018. Xi'an, Chin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hina Planning. (예정)

▶ 김태형 교수는 상반기에 4건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작년 상반기에 채택된 연구재단 신진연구 ‘이공계’ 프로젝트(3년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신진연구 ‘인문사회계’ 프로젝트(2년 과제, 교육부 지원)에도 선정되어, 인문사회-이공분야 간 접목이라는 융복합연구의 기틀을 닦게 되었다. 신규 과제는 정성-정량 연구방법을 통합하고 공간통계를 이용하여 도시 위험 패턴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학술연구뿐 아니라 전문성 배양이라는 대학원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무 프로젝트 두 건을 새로 시작하였다. 하나는 서울 근교 도시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다른 하나는 광역시의 도시마케팅, 도시브랜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강화, 수정, 발굴하는 것이다(대전광역시 발주).

▶ 마지막으로 김태형 교수는 환경계획 및 설계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대상지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도록 ‘서울대학교 대학 연구 성과 사회 환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환경계획학과 정수종 교수

- ▶ 정수종 교수는 2018년 4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국가 온실가스정보 신뢰성 평가체계 구축 및 WMO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기반 연구 (2018-2020)" 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주하였다.
- ▶ 강원도 홍천에서 5월에 열린 제1회 KGU 연합학술대회 초청연사로 참가하여 미래 생태계 변화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지거 쉐(Jige Quan) 교수

- ▶ 지거 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8년 3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에너지 효율적 근린주구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적응적 에너지 시뮬레이션 모델 및 동적 레인지 시스템의 적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 ▶ 2018년 4월 4~1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48th Annual Conference of the Urban Affairs Association에 참석하여 “Local Climate Based Energy Resilience Zones (ERZ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 4월 28일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의 2018년 춘계산학술대회에서 “Energy Resilient Zones(ERZ) for Disaster Mitigation”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 다가오는 6월 31일~7월 1일 중국 서안에서 개최되는 The 12th IACP Conference에 초청되어 “Smart Design for Multi-Objective Sustainable Urban Design-A Case Study of Shanghai Typical Residential Neighborhood”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 2018년 Engineering 저널에 Yang, P. P., Chi, C. S., Wu, Y.,와 함께 “A Geodesign method of human-energy-water interactive systems for urban infrastructure design: 10KM2 near zero district project in Shanghai”의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 지거 쉐 교수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설계 및 공간분석 연구실과 2018년 1~3월 동안 3차례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도시공간과 도시설계, 에너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환경조경학과 비베 콰이테르트(Wybe Kuitert) 교수

- 비베 콰이테르트 교수는 “Borrowing Scenery and the Landscape That Lends (借景與所借之景: <園冶> 的最後一章)” 논문을 중국 조경학 회지 중국원림(中國園林) 제268호에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명대 말 정원가인 계성(計成)이 쓴 정원서인 '원야(園冶)'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차경(借景)'의 의미를 정원 설계 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였다. 그동안 서구 학계에서 공간 구성의 기술적 측면 또는 고도의 추상적 논리로만 이해되어왔던 '차경'을 경관의 시간적, 공간적, 생태적, 감각적 가능성을 포괄하는 정원 조성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차경'이 현대 조경과 생태 분야에서 여전히 유효한 개념임을 밝혔다.
- 위 논문은 지난 3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sian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 and the 8th Yuan Ye Summit Forum'에서 “The Challenge of Yuanye”의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 비베 콰이테르트 교수는 지난 4월 28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Landscape System and Planning in the Netherlands”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환경조경학과 이유미 교수

- 이유미 교수는 환경조경학과 이찬중(석사과정)과 원종철 대표((주)쓰리디포커스)와 공동연구로 3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VR 환경에서 계절변화를 나타내는 3D 식재 라이브러리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식재 라이브러리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피드트리(Speed Tree)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식재모형을 제작하고 게임엔진 언리얼4를 통해 계절감을 부여하여 가상현실(VR)을 통하여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로 연구팀은 2018년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소재 및 시공' 분과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이유미 교수는 최재혁 소장(스튜디오 오픈니스), 환경조경학과 노원규, 제현지(이상 석사과정)와 함께 6월 초 서울시립은평병원의 조현병 환자를 위한 치유정원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설계안은 2017년 2학기 정원설계 스튜디오 수업결과물의 연장으로,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사회공헌형 교과목 지원을 받아 1차로 온실을 설치하였고 3개월간의 후속연구를 통해 2차로 환자들의 작업 치료를 위한 계단형 작업대와 그늘이 있는 휴식공간, 경관과 치유인자를 고려한 식재계획 및 작은 공연이 가능한 무대를 설계 및 시공하였다. 7월중에는 병원 관계자 및 환우들을 초청하는 음악회와 함께 오프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유미 교수 연구진과 (주)코흐에스엑스스튜디오(대표자 정재현), (주)쓰리디포커스(대표자 원종철)는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조경 정보화모델 및 조경가상현실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LIM-VR 연구협력 협약을 1월 27일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체결하였다. LIM-VR(Landscape Architecture Information in Virtual Reality)은 입체적 조경설계를 위한 정보화 모델링 연구와 함께 최근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가상현실 기술을 조경에 적용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조경설계 및 시공분야에서의 정보화 모델링 성숙화와 이용자가 미래에 조성될 공원의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협약을 통해 연구팀은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의 교류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

- 김세훈 교수는 올 상반기 베트남 후에시를 두 차례 방문하여 KOICA 지원사업인 항강 연안 워터프런트 설계와 신규 과업인 창마이랑코 경제구역의 하이반패스 도시설계에 관해 논의했다. 해당 대상지는 향후 유네스코 역사도시이자 베트남 중부의 신흥 거점으로서 여러 분야의 국제 전문가가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세훈 교수는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이자 출판문화 거점인 파주출판도시에 관한 정밀한 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 수업으로는 환경조경학과에 개설된 '도시재생스튜디오'에서 글로벌사회공헌단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난곡·난향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난곡·난향 도시재생을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

-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SCI급 저널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에 논문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microclimates at an urban forest edge and their management implications”를, 국내등재지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생태네트워크와 접근성 분석에 의한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전 우선순위 평가”를 교신저자로 게재하였다. 각 논문의 주저자는 대학원생인 Yingnan Li와 강완모 박사(현 청주대 교수)이다.
- 또한 환경부 과제인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책임 이동근 교수)”의 일환으로, 4월 18-20일 김나영, 김종희, 원수연 대학원생과 함께 일본 교토대 경관생태보전연구실과 공동워크숍을, 4월 21-22일에는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열린 동아시아생태학회에서 학술발표를 실시하였다.



신임 교수 인사: 환경계획학과 정수종 교수



정수종 교수가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 신입교수로 부임하였다. 정 교수는 부임 첫 학기인 2018년 1학기에는 환경생태학을 담당하였으며, 2학기에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과목을 강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환경모델링, 환경원격탐사 등의 과목을 새로이 맡을 계획이다. 정수종 교수는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이학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서 2004년 2월에 이학석사를, 2010년 2월에 이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정수종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Princeton University에서 3년, NASA Jet Propulsion laboratory에서 3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서울대 부임 전까지 중국 Shenzhen에 위치한 Souther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SUSTech)에서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2016년 SUSTech근무 당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정부가 수여하는 지구환경과학 분야 “젊은 천인인재 (One thousand talent)”에 선정되었다.

정수종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기후 및 환경 변화이다.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 변화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또 기후 변화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수종 교수가 이끄는 기후융합연구실은 1. 온실가스추적시스템(이산화탄소 거동 메커니즘 규명), 2. 생태계모델링(기후-생태 상호작용), 3. 신재생에너지 예측(태양광/풍력), 4. 생물계절학, 5. 지구 시스템모델링, 6. 도시화 등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수종 교수는 수치모형과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기후/환경 변화 교육 및 연구를 통해 환경대학원이 세계적인 환경연구기관이 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석박사 과정

5.1 2017학년도 전기 졸업식

2017학년도 전기 졸업식이 2018년 2월 26일 월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49명(환경계획학과 33명, 환경조경학과 16명), 박사 14명(환경계획학과 9명, 협동과정 조경학 5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는 석사 학위자 우수논문으로 환경계획학과 박선욱, 김주영, 김진태, 환경조경학과 김용진, 박한솔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5.2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2018학년도 1학기 양학과 통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난 2월 21일,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이번 환경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은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 통합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석 박사 신입생 총 70여 명과 성종상 원장, 김경민 부원장, 양학과 학과장 및 여러 교직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양 학과 학과장의 환영인사로 시작하였고, 학교시설 소개, 교수진 및 교과목 소개, 장학금 안내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점심식사 이후, 신입생들은 캠퍼스 투어를 겸해 환경대학원 입학 이후의 포부를 담은 사진 찍기 미션을 수행하였다. 우수팀에 대한 시상상을 가진 후 2부에서는 저녁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식 및 장학금 수여

2018년 3월 2일 입학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교통 동문 장학금, 환경관리 동문 장학금, 조경동문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이 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를 기리며 유가족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소윤미 학생(박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미라보 장학금**은 김병린 명예동창회장의 배려로 미라보건설에서 1993년도에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 **환경조경학과 이예린(석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김승정(석사과정)**, **오혜림(석사과정)**, **임현지(석사과정)**, **환경조경학과 유예슬(석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교통학 전공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박찬운(박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환경관리학 전공 재학생 중 논문실적을 고려하여 우수한 국내의 학술활동을 한 학생 2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김기은(박사과정)** 학생과 **신동혁(석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5.3 학생회 활동

1) 2018년도 1학기 개강총회

“모두들 반갑습니다.”

3월 14일 서울대입구역 인근 두만강 샵브샵브에서 1학기 개강총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대학원의 각 학과 신입생들과 기존의 학생들이 만날 수 있었다. 각기 다른 전공과 각기 다른 기수의 학생들이 만나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환경대학원에는 여러 학과가 있지만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는데, 이번 개강총회는 모든 학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각 테이블 별로 팀을 정해 게임을 진행하였다. 서로 머리를 맞대야 풀 수 있는 게임을 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게임과 함께 상품도 제공되어 학생들은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개강총회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환경대학원 구성원들이 한 데 모여 어울릴 수 있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2) 환경대학원 동아리 활동



2018년 학생회에서는 2017년 겨울방학 때부터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도시탐방동아리, 구기 동아리, 봉사 동아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현재 도시탐방동아리는 2018년 2학기부터 동아리 회원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기 동아리는 스쿼시 동아리와 배드민턴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봉사동아리는 추후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환경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기동아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와 환경계획학과 학생, 조교, 교수 모두가 함께 운동을 매개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현재 스쿼시동아리는 총 8명(환경계획학과4, 환경조경학과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관악사 지하에 있는 스쿼시장에서 꾸준히 활동을 진행 중이다. 배드민턴 동아리는 6월부터 함께 일정을 조율하여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테니스, 탁구, 농구, 축구 등 구기 종목 동아리까지 점차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매일같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는 석사, 박사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학생회에서는 꾸준히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탐방 동아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남녀요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직접 도시공간을 탐방하여 도시 공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답사를 통해 서로의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2018 환경대학원 옥상양봉

2018년에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옥상에서 양봉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안태홍(조경동문, Green Urbanist 대표) 외 4명의 환경대학원 구성원으로 구성된 양봉부는 4월 17일 옥상에 입주(계상작업)를 시작했다. 환경대학원 양봉부는 정기적인 이론 수업을 진행해 양봉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과 관리를 통하여 벌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이후 꿀을 직접 채밀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도시양봉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6.1 SGS 제34기 오픈특강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제34기에서 마련된 총 5회의 오픈특강 중 후반부에 2회의 오픈특강이 열렸다. 3월 8일에는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의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4월 5일에는 김진명 작가가 '한반도 무력충돌의 조건과 시기'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오픈특강은 기존에 수료한 펠로우를 비

롯하여 환경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동문들도 참석할 수 있는 특별 강좌로, 사전 공지된다. 오픈특강에는 매회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SGS 사무국(snusgs@snu.ac.kr, 02-880-8525)에 예약하면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6.2 SGS 제34기 해외시찰

SGS 제34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1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지극히 일본적인 것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일본 동해·중부해안 지역(가나자와 등)에 해외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해외 답사에는 성종상 대학원장, 전상인 주임교수, 최막중 교수, 이계준 공동주임교수, 김태형 교수를 비롯한 21명의 34기 펠로우와 선배 펠로우 3명이 함께 하였다. 주요 답사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시가현 나가하마, 구로카베 가라스관 도시재생 사례
-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히가시차야기이(茶街) 전통찻집 등
-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와지마, 와지마 수산시장
- 이시카와현 고마쓰, 전통공예촌 유노쿠니모리
- 교토부 이네, 이네노후나야(伊根の舟屋)



6.3 SGS 제34기 수료식

4월 19일(목),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제34기 도시·환경 미래 전략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제34기는 2017년 9월 21일 출범하여 전·후반기 총 18주 동안 도시, 건축, 조정,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31세션의 교육과 국내 및 국외 답사 프로그램을 제공

하였다. 동문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학생, 동문에게 개방되는 5회의 오픈특강도 마련되었다. 제34기에 진행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기	1	개강특강 - 국립공원 50주년의 의미와 과제	전상인 주임교수
	2	공간가치 창출의 인문사회학	최막중 교수
	3	'라이프 스타일' 도시	모종린 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4	오픈특강 I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김진표 국회의원, 前국정기획자문위원장
	5	통일과 남북한 교통체계의 통합	안병민 박사/한국교통연구원
	6	대륙 연계 육해로 교통체계의 전망과 과제	권원순 교수/한국외국어대
	7	오픈특강 II - 시를 이해하는 기쁨	정호승 시인
	8	디벨로퍼와 소핑몰	김경민 교수
	9	타임스퀘어: 리테일 상업용 부동산	김담 대표/경방타임스퀘어
	10	도시주거의 새로운 전개	최명철 대표/단우건축
	11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12	기후변화는 wicked problem	한삼희 수석논설위원/조선일보
	13	지속가능한 발전, 과연 가능한가?	홍종호 교수
	14	통일한반도의 국토인프라 현황 진단과 도시 구상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5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뉴딜 정책	이재준 공동주임교수
	16	오픈특강 III -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스피치	김은성 KBS 아나운서, 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후반기	17	한국인의 마음풍경 - 비가시성의 미학	성종상 환경대학원장
	18	한국인의 풍수관, 자연관	김두규 교수/우석대학교
	19	스마트도시와 가상현실	이유미 교수
	20	행동경제학: 환경 및 교통정책에 대한 함의	김태형 교수
	21	오픈특강 IV - 한국사람 만들기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이사장
	22	도시의 공원	조경진 교수
	23	도시와 광장	전상인 주임교수
	24	도시, 단지, 건축 - 파주 출판도시의 경우	김영준 서울시 총괄건축가, yo2 도시건축 대표
	25	도시의 식량문제와 슬로푸드운동	김종덕 교수/경남대
	26	식물의 인문학 - 근교농업과 도시환경	박중환 작가, 녹색사막 대표
	27	오픈특강 V - 한반도 무력충돌의 조건과 시기	김진명 작가

*펠로우 플랫폼이 전반기 2세션, 후반기 2세션 진행됨

34기 과정을 수료하는 34명의 펠로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승관 (태림조경 이사)

권순원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장)

권태희 (교통안전공단 부장)

김남규 (에스엠이주식회사 대표)

김병익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

김유종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장)

김철희 (㈜팩스 상무)

김철호 (메타스퀘어 대표)

박선화 (현대토건주식회사 본부장)

박종철 (국토정보교육원 교수)

서기복 (하나건설이앤씨 대표)

서미경 (해안건축 조경팀 수석)

송영담 (신한산업 대표)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양용택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장)

엄조영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장)

엄형원 (㈜PMK 대표)

예승용 (라온디자인그룹 대표)

오상협 (대왕빌딩 이사)

오우리 (Verse Development 대표)

유석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식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사장)

윤성호 (엘지유플러스 데이터센터설계팀책임)

윤양호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이상석 (부산이앤씨 대표)

이지환 (동양건설산업 이사)

이철구 ((사)녹색환경실천본부 총재)

이태석 (안산시청 상록구청장)

장명희 (한옥문화원 원장)

전상구 (㈜동산 대표)

진병복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장)

최대림 (장원조경 전무)

최승환 (정림건축 본부장)

한상원 (에이앤유디자인그룹 이사)



시민정원사

2018년도 상반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이 4월 6일 서울대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시작되었다.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 및 수목원, 마을가꾸기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과정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과정 중 이론 위주의 과정이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주관하여 2년간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정원에 적합성이 더 높은 우리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학기 강사진은 환경조경학과와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송영근 교수, 정욱주 교수, 외부 강사 정우건 소장(현 감이다esign 소장)으로 구성되었고, 교과 편성은 다음과 같다.

정원학개론, 동양정원사	서양조경사, 현대도시의 삶과 정원문화	도시생태와 정원	정원설계1	정원설계2	정원설계3	현장답사 -아침고요수목원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송영근 교수	정우건 소장	성종상 교수	정우건 소장	

2018 봄 학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 73명의 수강생들은 5월 25일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으로 답사를 가서 수목원 투어를 하고 조경 식재 식물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소식

8

동창회

8.1 동창회 이사회

지난 4월 3일(화) 전병성 동창회장을 비롯한 8명의 동창회 운영 이사가 모여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연기 해왔던 제22대 동창회 운영이사회 편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전공별 회장을 포함한 동창회 부회장 8명과 운영이사 6

명에 대한 추천과 동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부회장 2명을 추가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8년 환경대학원 동창회 홈커밍 데이 행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올해로 맞은 환경대학원 교육 50주년 기념행사를 겸하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8.2 전공별 동창회 행사

1) 교통동문 신년하례회



지난 2월 2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4회의실에서 교통동문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교통학전공 석·박사 졸업생 및 재학생과 김수철 명예동문회장, 김성수 교수, 이영인 교수, 장수은 교수 등 60여 명의 교통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신년하례회는 김연명 동문회장과 김수철 명예동문회장의 격려사로 시작하였고, 국내 연구원과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



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영은 박사와 임동욱 박사, 오관교 박사에게 기념패 전달식과 함께 우수한 학업 활동을 한 박찬운 박사과정에 교통동문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이후에는 저녁 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 환경관리 신년하례식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은 2018년 새해를 맞아, 1월 13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동원생활관 소담마루에서 김정옥, 이정전 명예교수를 모시고 재직교수와 동문, 재학생들이 함께 덕담과 근황을 나누는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졸업생들은

은사 및 동문들과 근황을 나누며, 새해에 각자가 품은 희망을 나누는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여러 재학생들의 참여로 재학생-동문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기회 의 장이 되었다.

3) 서울환경포럼 춘계 학술세미나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306호 글로컬홀에서 서울 환경포럼(회장 우정현, 환경 89, 건국대학교 교수) 2018년 춘계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울환경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통합적 학술모임으로, 학술교류 증진과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매년 두 차례씩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춘계포럼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환경문제 가운데 하나인 미세먼지 오염의 과학적 인과관계와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변화하는 미세먼지 오염 - 그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도원 교수, 이동수 교수, 윤순진 교수,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 등 환경관리전공 교수진과, 서울환경포럼 우정현 회장을 포함한 총 50여명의 환경관리전공 동문 및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발제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 세션 1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대한 발제가, 세션 2에서는 미세먼지에 오염에 대한 대책과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

는 환경위성 탑재체 알고리즘 개발단장인 김준 교수(연세대학교)가 “환경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관측”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한국형 미세먼지 모형 개발 연구책임자인 송철한 교수(GIST)가 “(초)미세먼지의 발생, 생성, 현황 및 예보”라는 주제로 미세먼지 관측과 발생 및 예측에 관한 과학/기술적 정보를 전달하였다. 세션 2에서는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이민호 교수(환경 87, 경희대학교 교수)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김주진 변호사(환경 02, (사)기후솔루션 대표)가 “지자체 및 사법제도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발표했다. 이어서 김성욱 박사(환경 00,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 경기도와 안산시를 사례로”를, 우정현 교수가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과 오염도 개선추세”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 현황과 정책의 법적 정당성 검토, 국외 사례 등 정책과 관련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오픈 토론 방식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예정된 시간까지 넘기며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4) 환경조경학과 동창회 홈커밍데이

지난 5월 26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버들골 잔디밭에서 ‘환경조경학과 홈커밍데이’(환경조경학과 동창회 주관)가 개최되었다. 굿은 날씨로 인한 일정 변동이 있었음에도 총 4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 재직교수 및 재학생들이 참석해 주었다.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졸업생들은 교수, 재학생들과 근황을 나누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다양한 체육 종목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 동정

9.1 석·박사과정

▣ **강완모 동문**(환경 06, 박사 08, 청주대학교 교수)은 지난 4월 1일 청주대학교 공과대학 휴먼환경디자인학부 조경도시계획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김승윤 동문**(협동조경 02,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보)은 지난 5월 30일 「벌, 그 생태와 문화의 역사」를 번역 출간했다(원제: The Bee: A Natural History / Noah Wilson-Rich). 이 책은 현재 환경 파괴로 사라지고 있는 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기획된 책으로 벌의 생태, 인간과 벌이 함께 만들어 온 문화, 양봉의 역사와 기본원리, 세계의 다양한 벌, 그리고 벌이 마주한 도전의 실체와 벌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이 책에는 꽃식물과 벌, 인간의 오랜 공생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과학(생태학)과 문화의 갖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고품질의 사진(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 **김재근 동문**(조경 03,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자연환경 복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 **김주영 동문**(환경 15, 환경재단 선임PD)은 지난 4월 12-18일 진행된 2018 그린보트를 통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가나자와 후쿠오카를 오가는 친환경 크루즈 여행 운영을 성공리에 마쳤다.

* 관련 기사 “그린보트, 다음 항해를 기약하며” 경향신문(2018. 04.29)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4292031015



▣ **정종관 동문**(환경 84, 충남연구원 실장)은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제38차 회의에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활동을 발표하고 회원 가입단체기관과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김명진 동문(환경 84, 국립환경과학원 근무)과 함께 드라켄스버그 라이노봉과 레소토왕국 산악생태답사를 추진하였다.

▣ **원자연 동문**(Jiayan Yun, 협동조경 14)은 지난 6월 8일 난징임업대 조경학과(Nanjing Forestry University, College of Landscape Architecture)의 조교수로 정식 부임하였다.

9.2 SGS

■ **최열 펠로우**(SGS 7기, 환경재단 이사장)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미세먼지센터”를 창립했다.

■ **SGS 제20기 자치회**(회장 지승준, 사무총장 김대문)는 1월 19일(금), 교대역 인근 한정식 식당 ‘도우리’에서 2018년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 **신지웅**(SGS 20기, EAN 대표이사 총괄사장), **고정림**(SGS 24기, EAN 사장) 펠로우가 재직 중인 이에이엔테크놀로지에서는 4월 19일(목), “ENA HEADQUARTERS OPENING CEREMONY”를 가졌다. 건축물에 친환경을 담아내기 위해 지난 십 수 년 간 노력해 온 이에이엔테크놀로지가 더욱 발돋움하기 위한 새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 **이부원 펠로우**(SGS 20기)는 1월 3-9일 동안 인사동 ‘갤러리 M’에서 사진전을 가졌다.



■ **최병진 펠로우**(SGS 20기)는 3월 14일 송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임고문으로 취임하였다.



■ **왕호석 펠로우**(SGS 27기)는 (사)도전과 나눔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사)도전과 나눔은 스타트업기업, 여성기업, 해외기업과 중소기업에 멘토링을 제공하고 매월 포럼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천군만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궁극적으로 천 명의 멘토가 만 개의 기업을 멘토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동문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동문 기업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문의 010-5286-0454).



■ **SGS 제28기 자치회**(회장 윤태권, 사무총장 남정현)는 3월 29일(목), 강남역 인근의 '해담채'에서 2018년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 **이상포 펠로우**(SGS 28기, 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대표)는 지난 2월 한양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SGS 제29기 자치회**(회장 김종석, 사무총장 양희범)는 4월 5일(목) 2018년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 **박경호 펠로우**(SGS 29기)는 국민인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복귀하였다.



■ **SGS 제30기 자치회**(회장 최원만, 사무총장 신현범)는 3월 2-3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친선골프(청도 그레이스CC)와 부산 답사를 다녀왔다. 2일 저녁 만찬에서 그동안 사무총장으로 수고한 전태효 펠로우(남영코칭&컨설팅 사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3일에는 30기 자치회 前 회장인 강완수 펠로우(대아이앤씨 회장) 자녀 혼사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강원수 펠로우**(SGS 30기)가 회장으로 있는 대아이앤씨(주)는 지난 12월 27일(수)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17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손혁재 펠로우**(SGS 30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에서 “남북한·중국 국제고속철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5월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립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미경 펠로우**(SGS 30기,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4월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기고자로 활동한다. 그동안의 기고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쓰레기 대란, 올 것이 왔다 (2018.4.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32044005&code=990304

2. 달달한 드라마 속 씁쓸한 일회용 컵 (2018.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62045025&code=990308

3. 맑은 하늘에 한 표! (2018.6.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32118025&code=990308

■ **전태호 펠로우**(SGS 30기)는 1월 2일부로 기업e러닝 및 컨설팅 전문업체, (주)남영코칭&컨설팅 사장 겸 부설 평생교육원장으로 부임했다. 해당 업체의 위치는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402호이다(문의: 02-421-2313).



■ **류은자 펠로우**(SGS 31기, 서울환경미술협회 회장)는 6월 25-30일 동안 “서울환경미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환경미술협회 주최로 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정 환경’을 주제로 송파지부 개막식과 함께 개최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이상기후, 쓰레기 대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각 계층마다 친환경적 삶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계에서도 친환경에 주안점을 둔 환경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환경을 사유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환경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 서울환경미술제를 개최하였다.



■ **SGS 제32기 자치회**(회장 지진호, 사무총장 이경훈)는 1월 17일(수), 양재동 '오선채'에서 2018년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 **SGS 제32기 자치회**(회장 지진호, 사무총장 이경훈)는 2월 2-3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답사모임을 가졌고, 3일에는 조성원 펠로우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SGS 제32기 자치회**(회장 지진호, 사무총장 이경훈)는 4월 18일(수), 명일동 남도회관에서 두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 **SGS 제32기 자치회**(회장 지진호, 사무총장 이경훈)는 4월 18일(수)과 5월 24일(목) 2회의 골프 윌레회를 가졌다.



■ **임진우 펠로우**(SGS 32기, 정림건축 대표)는 4월 19일(목), 펜스케치화 작품 '낙산이화마을'을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에 기증하였다.



■ **임진우 펠로우**(SGS 32기, 정림건축 대표)가 대표로 있는 정림건축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설계하였다. 해당 건축물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모두 철거되는 방식의 임시 건축물로 설계되었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철거되는 자재와 좌석은 모두 재활용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이념을 가지고 설계되었다고 한다.



■ **임진우 펠로우**(SGS 32기, 정림건축 대표)의 인터뷰가 지난 3월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문화교양지 DEN에 "풍경화 그리는 건축가 임진우"를 주제로 게재되었다.



■ **SGS 제33기 자치회**(회장 이영권, 사무총장 엄형원)는 2월 23일(금)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신년모임 및 회장 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권 신임회장(동아석재산업 대표)은 김재준 전 회장과 임원진에게 동기 펠로우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SGS 제33기 자치회**(회장 이영권, 사무총장 엄형원)는 5월 26일(토), 네 번째 지역문화 탐방으로 서울의 문화비축기지, 연트럴파크, 선유도공원, 서울로 7017 등을 답사하였다.



■ **SGS 제34기 자치회**(회장 김남규, 사무총장 서미경)는 4월 5일(목) 낙성대 '스테이크 함바'에서 종강모임을 가졌다. 성종상 원장과 김남규 회장을 비롯한 펠로우 20여 명이 함께 하였다.



■ **SGS 제34기 자치회**(회장 김남규, 사무총장 서미경)는 4월 28일(토) 관악산 등산모임을 가졌다. 김남규 회장과 10여 명의 펠로우가 참여하였다.



■ **SGS 제34기 자치회**(회장 김남규, 사무총장 서미경)는 6월 6일(수) 황성 웰리힐리골프장에서 친선 골프 모임을 가졌다. 전상인 주임교수와 김남규 회장을 비롯한 12명이 참석하여 친목을 다졌다.



■ **유성식 펠로우**(SGS 34기, 여수블루토피아 사장)가 사장으로 있는 여수시 웅천택지지구 투자기업인 여수블루토피아(유)는 2018년 6월 7일 여수시에 15억 원을 기부하였다. 기부의 목적은 웅천택지지구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명품 택지지구로 조성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덮개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 악취 저감시설 보강공사비로 쓰일 계획이라고 한다.



6·13 지방선거 당선 동문



박원순(SGS 9기)
서울특별시장



염태영(SGS 17기)
경기도 수원시장



오규석(SGS 3기)
부산시 기장군수



유덕열(SGS 7기)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정장선(SGS 4기)
경기도 평택시장

동문 여러분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2017.12~2018.5)

“동문 여러분들의 발전기금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규모	기부자 및 기부금액
1억 원 이상	고주 노용희 초대원장 장학기금[노재정·노재신(노용희 초대원장 상속인)] 1억 원
1,000만 원 이상	최고위과정 운영지원 [SGS 제34기 일동(회장 000)] 1,300만 원
500 ~ 1,000만 원	SGS글로벌리더십기금 [SGS 동문회장 송두영(SGS 22기)] 600만 원
	환경관리전공기금 [(주)오이코스(대표이사 배장영, 환경87)] 500만 원
100 ~ 500만 원	환경대학원 위임 주정훈(도시03,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팀장) 100만 원 약정(납입 완료)
100만 원 미만	<p>환경관리전공 학술활동 및 장학기금</p> <p>강신규(환경93, 강원대학교 교수), 김현국(환경01, 국립환경과학원) 박년배(환경00, 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삼(환경96, 삼성 SDS) 육근형(환경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p> <p>환경대학원 위임</p> <p>전제열(도시03,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정광욱(환경00, 삼성SDS)</p> <p>환경대학원 교수 발전기금(총 2억 원 약정)</p> <p>최막중(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전상인(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이영성(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김경민(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김성수(환경대학원 교수) 75만 원, 이영인(환경대학원 교수) 75만 원 장수은(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이동수(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홍종호(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오능환(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윤순진(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조경진(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성종상(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손용훈(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이유미(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김세훈(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p>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지금 바로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 기부 모두 가능)



(1만 원부터)



(일시납, 분할납, 약정 후 월납)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만 주세요

문의 | 대외협력조교 윤병석 02-880-5669 gsesnews@snu.ac.kr

|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p>환경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연간 재학생 22명, 약 2천만 원) ※ 여러분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p>	<p>국제학술활동 경비 지원 (연간 재학생 12명 내외, 약 1천만 원)</p>	<p>환경대학원 시설 개선 사업 (학생 연구 및 복지 공간 개선)</p>
---	---	---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제공)

1억 원 이상	<p>기부자 명패 제작 (서울대 본부/연구공원 명예의 전당 등재)</p>	<p>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1억 원당 1년 1회)</p>	<p>포스코 스포츠 센터 무료 이용 (1억 원당 1년)</p>
	<p>기부자 디지털 게시 (서울대 본부 명예의 전당)</p>	<p>근조기 발송 서비스</p>	<p>중앙도서관 평생 이용 미술관, 박물관 무료</p>
1천만 원 이상	<p>발전기금 회원카드 발급</p>	<p>중앙도서관 이용(1년)</p>	<p>기부자 명패 제작 (환경대학원)</p>
		<p>호암 교수회관 할인</p>	
1백만 원 이상			



환경계획학과 이희연 교수

정년 기념 인터뷰

1. 2005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오시고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와 지금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요?

가장 큰 차이점은 2005년 환경대학원에 왔을 당시에 대학원 내에 스터디 모임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 지역혁신, 폐기물 관리 등을 주제로 한 모임이었습니다. 지도교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공별 또는 연구실별 모임이 아니라, 관심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은 점차 찾아볼 수 없고, 전공별, 혹은 지도교수나 연구실 중심의 모임만 일부 남은 듯합니다. 학생들이 지적 탐구를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2. 그러한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이 없어졌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스터디 모임이 점차 없어지게 된 이유를 교수님께서 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채널이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선·후배 간, 동기들 간의 모임이나 교류를 통해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비해, 지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니즈가 매우 적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학생 개개인이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학업 외에도 개인 연구,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취미생활 등등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서로 시간을 정하고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환경대학원의 공식적인 융·복합 모임이나 세미나에도 학생들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은 있으나 모임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여 잘 모이지 못하고, 잘 모이지 못하니 당연히 환경대학원의 응집력도 떨어지고, 우리 대학원의 학문적 위상도 다소 떨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환경대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세태이기도 합니다.

3. 1988년에 집필하셨던 경제지리학이 30년이 지난 시점인 이번 6월에 제4판이 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제지리학 외에도 지리정보학(GIS), 고급통계분석론, 길잃은 축소도시 등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으며, 다른 학교들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집필하시는 계기 내지는 동기가 궁금합니다. 또 특히 애착이 가는 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경제지리학 제4판을 30년이 지난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출간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집필한 책들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고 고생도 많이 한 책이 2012년에 출간한 고급통계분석론입니다. 환경대학원에서 도시통계분석 과목을 가르치면서 맞춤형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장 절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로 하여금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고급통계를 가능한 쉽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여 우수한 논문을 쓰도록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높여 주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패널분석이나 위계

선형모델, 구조방정식과 같은 어려운 통계방법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혼자서도 독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구상하고 그림이나 도표로 가독성을 높이도록 집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실습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책이 850페이지가 될 정도로 많은 분량으로 지금 다시 집필하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웃음). 그러나 고급통계분석론을 집필하고 가장 흐뭇한 점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통계방법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재가 없던 동안 학생들이 판서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고 필기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수업 교재가 있으니까 미리 읽어오고 수업시간에 보다 집중하여 듣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전혀 통계를 접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실습을 통해 어느 정도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 고생도 많이 했지만 보람도 느낍니다.

4. 학생들이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도시통계분석이나 도시·지역분석 수업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곤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도시통계분석이나 도시·지역분석은 내가 환경대학원에 와서 개설한 과목입니다. 처음 강의계획표를 구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서 개설되는 유사한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학생들이 역량 있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강의계획서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르치는 과목의 학습 분량이 상당히 과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더불어 실습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 가시화하고 분석 내용을 문서화하는 단계까지 학습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가르치는 나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석사 1·2기에 이런 과목들을 통해 분석 방법론이나 데이터에서 정보 및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석사 3·4학기나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를 읽거나 분석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머리로 기계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자신의 전문성과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울 수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된다면 힘들고 다소 분량이 많은 학습 내용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맞춤형 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현실 상황과 실태가 어떤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만들고, 지식에다 지혜(지역의 맥락적 상황과 주민들의 경험)를 쌓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계 분석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가는 길입니다.

5.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도시통계나 도시·지역분석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지만 매우 유익한 수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 외에도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좀 더 애착이 가는 수업이 있다면 어떤 수업인지요?

도시통계분석이나 도시지역분석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론이기에 학생들에게 발표 수업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되고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피드백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한 것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청해서 담당할 수업이 '국토·지역계획'입니다. 본래 이 수업은 외부 강사 분께서 담당해오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 특히 지역계획은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수업시간에는 조별로 선진국들의 지역계획의 특성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 지난 60여 년 동안 국토 및 지역계획과 지역정책들이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조별로 집단학습을 수행함으로써 개개인보다는 시너지 학습효과를 누리면서 주어진 시대의 정책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향후 미래에는 어떤 지역계획과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우도록 시도한 수업으로 매우 애착이 간 수업이었습니다.

6. 올해는 환경대학원 교육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의 위기, 환경대학원의 위기라는 말도 간간히 나옵니다. 일례로, 우리 대학원의 입학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대학원의 교육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환경대학원에 처음 부임할 당시 환경대학원(특히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은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선두주자였으며, 교수님들도 국가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분들로 명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환경대학원 교수로 부임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환경대학원의 위상과 명성을 이어나가고, 또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내지 부담감이 내 스스로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환경대학원 교수로서의 역할이 내 개인적인 일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간을 안배하였습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환경대학원의 거의 모든 보직(고위정책과정 주임교수만 제외; 원장 대행도 5개월 수행)을 맡아서 하면서 e-환경논총, e-뉴스레터를 발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여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환경대학원 교육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었다는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입시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 대학원과 경쟁할 수 있는 유사한 대학들이 늘어났으며, 그 가운데는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곳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환경대학원은 지금까지의 명성과 위상에 의지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는 모멘텀을 별로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대학원의 강점이라고 내세우는 전공의 융복합도 실상은 큰 진전이 없습니다. 내가 환경계획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전체 전공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나 세미나, 더 나아가 철원 통일 관련 사업들을 추진했었지만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환경대학원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환경대학원의 위상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교수들과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 ‘환경대학원’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강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비공식적이라도 자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자리는 “Coffee Hour”입니다. 매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교수와 학생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초청 강사의 특강을 듣고 격렬한 토론을 벌이면서 공동체 의식을 쌓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지식기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간의 네트워킹으로, 공식적·비공식적이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을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될수록 잠재적인 시너지가 발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 및 창조적 발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금년 8월 말에 퇴임하시는데요, 퇴임 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임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내가 교사로 4년, 교수로 34년, 그리고 시간강사를 포함하면 약 40년을 교직에 있었음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특히 36년이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많이 가르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퇴임 후에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배우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재능을 기부하고 도움을 주는 일들도 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르치는 일에서 배우는 일, 돈 버는 일에서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일, 재능을 기부하는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배우는 일을 통해 두뇌와 신체를 골고루 조화롭게 움직이려고 하고, 책도 전공 관련 서적이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싶습니다. 그동안 학생들만 돌보았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특히 강의나 자문 등 전공과 관련된 일들은 후학들에게 다 맡기고, 사회 속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배우고 재능을 기부하면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퇴임할 때 흔히 ‘시원섭섭하다’는 말을 합니다만, 나는 시원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시간(present)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present)이라 생각하고, 그때그때의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별로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좀 더 잘 지도하고 더 돌보아주

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아서 그동안 내 나름대로 열정을 다했구나! 생각합니다. 단지 환경대학원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퇴임하려고 합니다.

8. 끝으로 환경대학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취업난이 심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다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학생들 사이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 중에 '3C'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Chance)가 있으면 선택(Choice)하고 도전(Challenge)하여 열정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밖의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 너무 많은 망설임으로 과감히 선택하고 도전하는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저성장 추세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개발시대가 끝나고 인구감소, 탈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해답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개발시대에 가졌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으로 현실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져 갑니다. 개발의 시대가 아닌 축소의 시대, 노후화의 시대는 아직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으며, 그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나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가져야 하며, 길이 없다면 길을 내어서라도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입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도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 언젠가는 올라갈 길을 찾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감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개척자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Never Give up) 도전감과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걸음 걷다보면 길이 열리며 취업문도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될지 안될지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사명감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면 자긍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국토, 지역,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진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자아 정체성만으로 학생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2018-2019 / 35기 모집안내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교육 지식공동체입니다.
주변의 뜻있는 분에게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포
공간지식
재생활학교

과정 | 2018년 8월 - 2019년 2월 (6개월, 주1회(목) 야간과정)

자격 | 관련분야 실무전문가, 임원, 시민단체, 공무원, 단체장 등.

접수 | 2018년 8월 10일(금) 마감

출범식 | 2018년 8월 30일(목) 예정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http://gses.snu.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접수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행정실

전화 02-880-8525 이메일 snusgs@snu.ac.kr